

한국형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Functioning Scale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박사과정 최희진*

교수 유영주

Major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Choi, Hee-Jin

Professor : Yoo, Young-J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amily functioning scale that is suitable for Korean familie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a survey on a sample of 350 mothers of school-age children, who were living in Seoul, Kyunggi-do, and other cities of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rough the item discrimination test, 63 of the 77 item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thus deemed acceptable. The level of discrimination indices of the 63 items ranged from .38 to .84. 2) 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63 items. Six different factors (Emotional Support, Family Intimacy, Respect for Autonomy, Communication, Family Rules, Time Spent Together) emerged for 37 items. The six factors accounted for 56.51% of total variance. 3)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reduce the number of items, and the final 36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amily Functioning Scale. 4) The reliability measured b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36 items was high (Cronbach's $\alpha=.93$). 5) The Family Functioning Scal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ACESIII($r=.80$) as well as with FAD($r=.78$).

▲ 주요어(Key word) : 가족기능성(family functioning), 기능적 가족(functional family), 가족기능도척도(family functioning scale)

1. 서론

가족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체계로서, 개인의 인성과 생활태도 및 가치관의 대부분이 가족을 통하여 형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가족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분위기와 상태, 즉 가족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의 문제는 그 가족에 속한 개인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있으므로, 이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소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들도 학

교나 학원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PC 통신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가정 내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이기보다는 각자 흩어져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결국 여러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외형적 구조는 유지하나 내면적으로는 작은 위기에 도 적응능력을 상실하는 위기 경향적 가족(김일명, 1995)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패륜적인 가정범죄들은 이러한 가족 내 역기능성이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비행 청소년 가족과 폭력 가족의 가족기능성이 일반 가족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김수연·김득성, 1999; 김윤희, 1989; 도수경, 1991; 이경호, 1999; 최용배, 1996).

가족의 역기능성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병리현상을 가중시키기도 하지만 특히 그

* 주저자 : 최희진 (E-mail : hjin0628@chollian.net)

가족에 속한 개인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청소년 자녀의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적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크다.

우울증 환자 가족의 가족기능성에 대한 김흥기 등(1991)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 가족의 가족 결속력이 다른 가족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성윤(1998)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기능성이 개인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순복(200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성과 정신건강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가족기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민은정, 2000; 이상현, 1996)에서는 가족기능도가 높은 가족의 자녀들이 우울과 불안을 덜 느꼈고, 가족기능도가 낮아질수록 우울과 불안의 정도가 심하며 자존감도 낮아졌다. 그리고, 가족이 역기능적일 때 가족원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윤도경, 1999; 서향숙, 1998).

또한 윤찬정(1995)의 연구에서는 기능적인 가족의 구성원일수록 더 성숙하고 원만하며 바람직한 인성특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강선(199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성 정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능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최근의 여러가지 병리적인 가족 문제들도 가족의 역기능성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능적 가족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능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을 뿐 한국 가족의 가족기능성 요인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척도들이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상의 오류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최지호, 2000). 또한 외국의 척도들은 대부분이 연구자의 이론적 성향과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한 가지 이론에 기초하여 제작되고 있으므로, 임상 환경에서 객관적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Kolevzon & Green, 1985 재인용). 따라서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치료 영역에서 포괄적인 가족기능도 측정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여 전체론적인 가족모델을 제시하고 있다(Doherty & Colangelo, 1984; Grunebaum & Chasin, 1982; Pinsoff, 198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 척도들은 외국과 우리나라 가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다소 왜곡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론에만 기초하기보다는 한국 가족의 정서와 실제 한국 가족들이 인식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제시된 내용을 여러 이론과 문헌에서 제시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과 종합하여 우리나라 가족의 기능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가족 내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가족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가족치료 및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가족기능성 진단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한국인이 인식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연구문제2> 가족기능도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의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가족기능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요인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4> 가족기능도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5> 가족기능도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6> 가족기능도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능적 가족의 개념

1) 가족의 기능성과 가족의 건강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기능성(family functioning)과 가족의 건강성(family strength)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이 두 용어의 개념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용어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며, 미국의 연구에서도 이 용어의 개념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이 혼용되고 있다. 더구나 이 두 용어 외에도 'healthy', 'adequate', 'optimal', 'normal', 'untherapized' 등 다양한 용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가 원하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을 뿐 개념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기능성'과 '가족 건강성'의 개념을 굳이 구별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족 기능성'은 주로 가족치료나 상담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가족의 외부 환경과의 관계보다는 가족의 내부 환경, 즉 가족 관계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원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가족 내의 신념이나 규칙' 등 가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반면, '가족 건강성'은 주로 가족생활교육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가족 내부 환경

자체보다는 '가족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가능성과 발전성', '가족을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등 가족의 발전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이 두 용어의 개념을 뚜렷이 구별할만한 연구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용어의 사용과 개념 정의는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가족 건강성(family strength)과 가족 기능성(family functioning)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Trivette와 Dunst(1990)는 가족의 잠재력을 말하기 위해 건강성(strength)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 '건강성'은 '건강함'으로부터 '약함'에 이르는 연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기능성(functioning)'은 생활사건을 처리하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가족은 좋거나 나쁜 상태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사건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성(family functioning)'을 사용하였는데, 가족치료와 상담 등 임상 영역에서는 '건강성' 보다는 '기능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이 연구 뿐 아니라 가족상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에 있으므로, '건강성' 보다는 '기능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2) 기능적 가족의 개념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가족의 체계적 접근(systematic approach)에서는 개인이 가족환경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또 가족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과 역으로 가족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독특한 관점과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Freeman, 1981). 즉 체계 이론은 인간을 체계 내에서 작용하는 복합적인 존재로 보며, 따라서 한 개인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체계, 즉 가족체계가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체계 자체를 수정·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이문행, 1993 재인용). 이처럼 기능적 가족은 가족체계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역기능적 가족과 기능적 가족의 가족과정을 판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정현숙 외, 2001), 이렇게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가족 내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가족의 개념과 특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고 있다.

Fisher와 Sprenkle(1978)는 가족원의 인격이 존중되고 인정받으며, 안정감을 느끼는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라 하였고, Bloom(1985)은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가족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가족의 사회성을 고무하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Belkin과 Nass(1984)는 제대로 기능하는 가족은 가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Lewis 등의 연구(1976)에서는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원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적인 자주성이 존중되고 개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며, 가족의 변화(성장, 발달, 노쇠, 죽음 등에 의한 변화)에도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Goldenberg, 1995).

가족치료학자인 Nagy는 가족 내에서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가족원들은 서로의 성실성에 책임이 있고 그것을 지지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받는다고 하였고, Pierce, Nichols, & Dubrin(1983)은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그들의 감정과 창조성에 대해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으며, Bowen은 잘 적응하는 가족들은 부모가 그들의 원가족과 자율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Satir는 기능적인 가족은 가족규칙에 융통성이 있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였으며, Gottman, Markman & Notarius(1977)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기능적 가족의 중요한 특성으로 보고 있다(송정아 외, 2002).

그러나 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은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과 두드러진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분하기 힘들만큼 섞여 있으므로(Beavers, 1977), 가족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기능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족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기능적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족치료와 상담 및 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문제가 있는 가족과 일반 가족의 기능도를 비교하는 정도이며, 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는 최근들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몇 편의 논문과 문헌에서 학자들이 제시한 기능적 가족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숙(1998)에 의하면 기능적 가족은 하위체계의 경계선이 분명하나 가족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명확하고 공평한 가족규칙을 갖고 있으며, 가족원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또한 자유롭고 분명한 의사소통 유형을 갖고 있다. 또한, 최지호(2000)의 연구에서는 지지, 소외, 친밀도, 역할, 사회성, 권위, 갈등의 일곱 가지 요인이 가족 기능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만성질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기능 측정도구를 개발한 이인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기능적 가족의 하위요인으로 결속, 의사소통, 가족규범, 역할과 책임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이론적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가족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능적인 가족이란 가족 내의 하위체계간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경직되지 않아 원만한 상호작용을 적절히 유지하고, 가족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가족원들간에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으며, 명확화하면서 융통성 있는 가족규칙을 가짐으로써 가족체계의 변화와 가족원들 사이의 갈등상황에 잘 대처하여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고 균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족이다.

2. 가족기능도 측정 도구 고찰

문항 구성에 필요한 하위영역 설정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능적 가족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정의 외에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외국

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들이 우리나라 가족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척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몇 개의 가족기능성 측정도구와 더불어 외국 척도들 중 타당화 되었거나 비교적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족기능도 척도를 고찰하였다.

가족 기능성 측정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표1), 이 척도들이 측정하는 가족기능성의 차원도 다양하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척도로는 최지호(2000)의 척도와 이인숙 등(2002)의 척도가 있다. 이 척도들은 각각 의학분야와 간호학 분야에서 개발된 것으로 최지호의 척도는 지지(supportiveness), 소외(alienation), 친밀도(closeness), 역할(roles), 사회성(sociality), 권위(authority), 갈등(conflict)을, 이인숙 등(2002)의 척도에서는 결속, 의사소통, 가족규범, 역할과 책임 등을 하위요인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척도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ACES(Family Adaptation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 · II · III의 경우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유대감(Cohesion)과 가족체계의 변화에 대한 가족의 적응력(Adaptation)을 측정하고 있으며, Family APGAR는 주로 간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가족의 적응성, 협력성, 성장성, 애정성, 해결성 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Epstein, Baldwin, Bishop(1981, 1983)이 McMaster모델에 기초하여 만든 FAD(Family Assessment Device)에서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 정서적 관련, 행동통제, 그리고 일반적 기능의 6가지 영역으로 가족기능도의 하위영역을 정하고 있으며, 역시 McMaster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된(Steinhauer, Santa-Barbara, Skinner, 1982) FAM (Family Assessment Method)은 역할수행, 의사소통, 애정표현, 정서적 개입, 가족관리양식, 문화적배경(가치와 규칙)으로 나누어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Moos(1974)가 개발한 FES(Family Environment Scale) 역시 국내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척도인데, 이것은 가족기능을 관계 영역, 개인적 성장영역, 체계유지 영역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FES와 FACES, FAM 등을 기초로 개발한 Bloom(1985)의 Self-Report Questionnaire of Family Functioning에서는 관계와 가치, 그리고 체계유지의 세 개 차원으로 가족기능도를 측정한다.

Beaver 등(1985)의 SFI(Self Report Family Instrument)에서는 가족갈등, 가족의사소통, 가족일치성, 직접적인 지도, 가족건강성 등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하위요인보다는 전체적인 가족기능성을 강조한 Tavitian 등(1987)의 FFS(Family Functioning Scale)에서는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갈등, 가족근심, 가족의례/지원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최희진·유영주(1999)의 FFS 타당화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가족정서, 가족의사소통, 가족행사 참여, 그리고 가족 일 나누기로 재구성되었다.

<표 1> 가족기능도 측정 도구 및 하위영역

척도명(제작자, 제작연도)	하위요인
가족기능 평가도구 (최지호, 2000)	지지(supportiveness)/ 소외(alienation)/ 친밀도 (closeness)/ 역할(roles)/ 사회성(sociality)/ 권위(authority)/ 갈등(conflict)
가족기능 측정도구 (이인숙 외, 2002)	정의적 결속(Affective bonding)/ 외적 자원과의 관계 (External relationship)/ 가족규범(Family norm)/ 역할과 책임(Roles & responsibilities)/ 의사소통 (communication)/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s)
BTFES (Beavers et al., 1972)	Family structure/ Autonomy/ Affect/ Perception of reality/ Task efficiency
Family APGAR Index (Smilkstein, 1978)	Adaptability/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Family Assessment Measure (Skinner, Steinhauer, Santa-Barbara, 1983)	Task accomplishment/ Communication/ Role performance/ Affective expression/ Affective involvement/ Family management/ Values & Norm
Family Concept Test (Van Der Veen, 1984)	Consideration-conflict/ Family actualization/ Togetherness/ Open communication/ community sociability/ Closeness/ Family ambition/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FACESIII (Olson, Porter & Lavee, 1986)	Adaptability/ Cohesion
Family Environment Scale(Moos & Moos, 1981)	Relationship/ Personal growth/ Structural maintenance
Family Functioning Index (Pless & Satterwhite, 1973)	Marital satisfaction/ Frequency of disagreement/ Happiness/ Communication/ Weekends together/ Problem-solving
Family Functioning Scale (Bloom, 1985)	Cohesion/ Expressiveness/ Conflict/ Organization/ Sociability/ Interlectual-Cultural/ Disengagement/ Active-Recreational/ Religious Emphasis/ Idealization/ External Locus of Control/Democratic family style/ Laissez-Faire family style/Authoritarian family style/ Enmeshment
Family Functioning Scale (Tavitian, Green, Lubiner, Grebstein & Velicer, 1987)	Positive family affect/ Family communication/ Family conflicts/ Family worries/ Family rituals-support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Scales (Antonovsky and Sourani, 1988)	Coherence/ Adaptation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dwin & Bishop, 1983)	Problem solving / Communication, Roles / Affective responsiveness / Affective involvement / Behavioral control
Self-Report Family Instrument (Beavers, Hampson & Hulgus, 1985)	Communication/ Cohesion/ Directive leadership/ Health/ Conflict
Simulated Family Activity Measure (Strauss & Tallman, 1971)	Power / Support / Communication / Problem solving ability / Creativity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기능성 측정 도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척도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유대감)', '자율성(성장성)' 등은 대부분의 척도에서 제시되는 요인이므로, 기능적인 가족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김유숙(1998)의 문헌에서 제시된 '가족규칙(행동규범)', '경계선' 은 기능적 가족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예외법절과 위계질서 등을 중요시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가족간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의 척도에서는 이런 특성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희진·유영주(1999)의 연구에서는 FFS를 우리나라 가족에 적합하도록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시간공유 정도와 가족의 행사 및 활동에 대한 태도에 관한 내용이 가족기능도의 하위 요인으로 추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 것 또한 기능적 가족의 중요한 특성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유대감)', '자율성(성장성)', '가족규칙(행동규범)', '경계선', '시간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의 일곱 가지 영역을 문항 구성의 기본 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가족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기능적 가족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항에 반영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가족기능도 척도 구성

① 이론적 고찰 및 기능적 가족의 특성에 대한 개방형 질문 조사

가족기능도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위영역을 설정하고자 우선 기능적 가족의 개념정의 및 특성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유대감)', '자율성(성장성)', '가족규칙(행동규범)', '경계선', '시간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의 일곱가지 기본 영역이 설정되었다.

또한 이론적인 내용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능적 가족의 특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문항에 반영하고자 가족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능적 가족의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주부 150명이었으며, 질문 내용은 '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다섯 가지 특성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이 가족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 가족의 개념을 몰라 제

대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응답자들에게 기능적 가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면 응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특별한 개념 설명 없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단, 응답자들이 설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정도로 간단히 알려준 후 응답토록 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가족간의 애정·믿음·협동·심리적 안정감' 등의 내용이었고,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확실한 역할분담 및 역할규칙의 명확성과 융통성' 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빈도도 높았다. 또한 '잠재력 개발·육구충족·인격형성·독립심 발달' 과 같이 개인의 성장 및 자율성 발달과 관련된 응답도 많았고, '위계질서', '시간공유·가족행사 참여'라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으며, 그리고 '역할에 충실함', '명확한 경계선', '경제력·의식주 충족·사회적 능력'을 중요한 특성이라고 본 응답의 빈도도 높았다.

빈도가 높은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족가치관이 가족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인식되어 온 것과는 달리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 발달, 민주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계질서와 부모의 권위 등을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전통적 가족가치와 서구적인 가족가치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 가족의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관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문항구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빈도가 높은 응답들 중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한 일곱가지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영역에 포함하고, 기본 영역과 다른 내용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척도에 추가하였다. 응답 내용 중 기본 영역과 일치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간의 애정·믿음·협동·심리적 안정감'은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영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친밀감(유대감)' 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역할분담 및 역할규칙의 명확성과 융통성'은 가족규칙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역할 자체는 규칙이라 할 수 없으나 역할을 나누고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해놓은 방식이나 습관 및 규칙은 가족 내의 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영역에, '잠재력개발·육구충족·인격형성·독립심 발달'은 '자율성 개발(성장성)' 영역에, 그리고 '위계질서'는 '경계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시간공유·가족행사 참여'는 '시간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력·의식주 충족·사회적 능력' 과 '역할에 충실함', '친척관계' 등에 관한 것은 기본 영역으로 설정한 일곱가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용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문항구성에 반영하였다.

② 가족 기능도 척도 구성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과정을 통하여 척도의 문항을 다음의 일곱 가지 영역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가족기능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는 가족의 역기능성과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의 정도와 의사결정시에 가족원을 존중하는 정도, 그리고 의사소통의 민주성 정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가족원간의 애정, 협동 및 신뢰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편안함의 정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 번째 영역은 '친밀감(유대감)'으로 이 영역에서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가, 서로에게 얼마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자율성(성장성)'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개별 가족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 지원을 하는가, 가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가족이 도움을 주는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섯 번째는 '가족규칙(행동규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가족 내에 정해진 규칙이 있는가의 여부와 가족규칙의 융통성 정도 등을 살펴봄, 가족내의 역할분담과 수행 규칙에 관한 내용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여섯 번째 영역은 '경계선'이다. 이 영역은 가족원간의 경계선 여부와 그 경직된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며, 위계질서와 부모의 권위에 관한 문항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역은 '시간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식사, 여가시간 등)과 가족행사 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상의 일곱 가지 영역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한 뒤, 일반인들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응답되었으나 일곱 가지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기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은 가족의 경제력에 관한 문항, 역할수행, 갈등에 관한 것과 친척관계 관련 문항들이다. 가족의 경제력에 관한 문항은 가족관계와 관련되지 않고 친척관계에 관한 문항도 사실상 가족 외부환경에 관한 것이므로, 가족 내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본 척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력의 경우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빈도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았고, 친척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족들이 친척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가족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90개 문항의 예비조사용 척도가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문항 및 기타 문제점을 함께 적어달라고 하여, 응답자들의 의견

을 참고로 문항을 수정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그 후 가족학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사를 받았으며, 어색한 문장이나 애매한 문장을 추가로 수정하여 총 77문항으로 본조사용 가족기능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2) FACESIII · FAD

가족기능도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사를 위한 기준 척도로 FACESIII와 FAD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준거가 될만한 국내 척도가 아직 없는 상태이므로, 부득이하게 외국의 척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 척도들 중 FACESIII와 FAD를 선택한 것은 이 척도들이 오랫동안 국내 연구에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다른 척도들에 비해 번역상의 오류 등의 문제점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① FACESIII

Olson 등(1986)에 의하여 제작된 FACESIII는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Adaptability)의 두 차원으로 가족기능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68$ 이다.

② FAD(Family Assessment Device)

Epstein, Baldwin, 그리고 Bishop(1983)이 McMaster 모델에 기초하여 제작한 것으로 총 6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FAD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역할(Role),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iveness), 정서적 관련(Affective Involvement), 행동통제(Behavior Control), 그리고 일반적 기능(General Functioning)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매우 그렇다(1점)'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점이 낮을수록 가족기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기능도가 높은 것으로 점수화하였다.

FAD의 신뢰도 계수는 .72부터 .92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지방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가족기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 가족원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우므로 한 가족원을 정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Skinner(1983)에 의하면, 가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가족원은 어머니이므로 조사대상자를 ‘자녀를 둔 주부’로 하였다.

질문지 배포는 2002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 중 387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기재를 제외한 3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표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0대 이하	163(46.8)	직업	주부	185(54.4)
	40대	158(45.4)		노무직	57(16.8)
	50대 이상	27(7.8)		자영업	48(14.1)
계	348(100.0)	사무직		35(10.3)	
				전문직	15(4.4)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7(2.0)	계	340(100.0)	
	중졸	22(6.4)	가족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20(5.9)
	고졸	180(52.5)		100-200만원	113(33.3)
	대졸 이상	134(39.1)		200-300만원	109(32.2)
계	343(100.0)	300-400만원		69(20.4)	
				400만원 이상	28(8.3)
가족 생활 주기	미취학아동기	48(14.4)	계	339(100.0)	
	초중등교육기	148(44.4)	*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변인별 총계가 다름.		
	고등교육기	108(32.4)			
	진수기	28(8.4)			
	계	333(100.0)			

응답자의 연령층은 대체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았고 (46.8%, 45.4%),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이상(52.5%, 39.1%)이 많았으며,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율은 비슷하였다(54.4%, 45.6%).

3. 분석방법

문항양호도 평가를 위해서 응답 총점이 상·하위 각각 25%인 집단에 대하여 χ^2 검사를 실시하고 Cramer's V 계수를 산출하였다. 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문항의 요인별 설명력을 알아보고 설명력의 증가분이 적은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좀 더 적은 수의 유용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인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인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가족기능도 척도와 FACES III·FAD와의 상관관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문항양호도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기능도 문항에 대한 응답 총점이 상·하위 각각 25%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고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표3).

<표3> 문항양호도

문항 번호	χ^2	Cramer's V	문항 번호	χ^2	Cramer's V
2	56.53***	.57	38	38.63***	.47
3	95.94***	.74	40	54.37***	.55
4	26.07***	.38	41	77.69***	.66
5	79.48***	.67	43	68.77***	.62
6	97.66***	.74	45	93.13***	.73
7	98.35***	.75	46	83.33***	.69
8	108.05***	.78	47	42.82***	.49
9	103.01***	.76	48	80.59***	.68
10	98.06***	.70	50	99.39***	.75
12	125.67***	.84	51	118.96***	.82
13	91.72***	.72	54	69.71***	.63
14	95.81***	.74	55	81.87***	.68
15	96.87***	.74	56	75.77***	.65
16	82.05***	.68	57	66.84***	.62
18	106.56***	.78	58	85.88***	.70
19	101.66***	.76	59	98.38***	.75
20	75.40***	.65	60	77.82***	.66
21	70.75***	.63	61	78.88***	.69
22	77.29***	.66	62	75.07***	.65
23	121.28***	.83	63	71.01***	.63
24	100.81***	.76	64	81.48***	.68
25	40.06***	.48	65	71.83***	.64
26	56.25***	.56	66	52.54***	.55
27	37.85***	.46	68	93.98***	.73
29	54.15***	.55	69	75.34***	.65
30	121.56***	.83	70	47.58***	.52
31	93.70***	.73	71	87.43***	.70
32	68.92***	.62	73	84.43***	.69
33	65.09***	.61	75	29.18***	.41
34	38.14***	.46	76	47.38***	.52
35	69.64***	.63			

*** p<.001

* χ^2 값이 유의하지 않거나 Cramer's V 계수가 .25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였음.

분석 결과, 전체 77문항 중 χ^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문항은 63문항이었으며, 이 문항들의 Cramer's V 계수는 .25 이상이였다. Ahmann 과 Glock(1967)에 의하면 변별지수가 .25 이상일 때 문항이 양호하다 할 수 있다(어은주, 1995). 이 기준에 따라서 총 77문항 중 63개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인분석

문항양호도 검증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63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각 요인에 적합한 문항을 찾아내기 위하여 주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ing)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은 14개가 산출되었고, Scree-test 결과에서는 3~4개 정도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의 수가 4개일 때는 요인의 설명력이 45%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못하였다. 요인의 설명력은 요인수가 5개일 경우에는 50%, 6개일 경우에는 55%, 7개일 경우에는 58%, 8개일 경우에는 59% 정도로 증가하였으므로, 설명력을 고려하였을 때 요인의 수는 6~7개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았다. 또한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문헌고찰을 통하여 설정했던 기본영역의 수도 7개였으므로, 요인의 수를 7로 정하고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회전방법을 직교회전으로 하지 않고 사각회전으로 한 것은 가족기능도의 하위 요인들이 독립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요인간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직교회전 보다는 요인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사각회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사각회전의 결과에서 제시된 요인간 상관관계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사각회전이 적절하였다고 본다.

사각회전 결과, 7개 요인으로 묶여진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것을 추출하여 요인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7개 요인 중 6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가족관계와 상호작용, 가족 내에서 정해진 행동규범 등 가족 내부 환경진단 이라는 본 척도의 목적과 부합하였으나 1개 요인은 가족의 경제력과 사회적 대처 능력에 관한 세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의 내부 환경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였다. 문항 구성시에 이 문항들을 척도에 포함한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였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인분석 결과로 제시된 세 개의 문항은 두 문항이 경제력에 관한 내용이고 한 문항은 사회적 대처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서로 일관성이 없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였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문항을 제외한 60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의 수를 6으로 지정하고 다시 한 번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사각회전 결과 추출된 6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7개로 요인수를 지정하였을 때 추출되었던 것과 같은 요인구조를 나타

내고 있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문항은 총 47개였다. 추출된 6개 요인은 각각의 설명변량이 23.60, 13.54, 6.41, 5.09, 4.20, 3.67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6.5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수도 여전히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사각회전을 실시한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표4).

각 요인별로 할당된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33번과 76번 문항은 요인II 와 요인IV 에 대하여 각각 .45와 .43, .37과 .36의 부하량을 보였고, 43번 문항은 요인II 와 요인III 에 대하여 각각 -.32, -.35의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 요인을 결정하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이 세 문항은 한 요인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4개 문항들의 요인구조와 요인의 명명은 다음과 같다. 각 요인의 명명은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는데, 요인의 명명시에는 부하된 크기의 순서대로 그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 요인마다 가장 크게 부하된 문항을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Waltz & Bausell, 1981; 이인숙 외, 2002에서 재인용). 그러나 반드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만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전체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명명하였으며, 같은 요인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좀 다르거나 요인간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든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각 요인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3.60%를 설명하고 있으며, 14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의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지지와 심리적인 안정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몇몇 문항들은 이와는 좀 다른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7번, 9번, 32번 문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문항은 각각 '7.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이 함께 의논한다', '9. 각자의 생활과 전체 가족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32. 가족행사가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는 것으로 정서적인 지지나 심리적 안정감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번과 23번 문항은 각각 '5. 서로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23.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정서적 지지 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 등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관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요인III 과의 구별을 다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14개 문항들 중 7번, 9번, 32번 문항과 5번, 23번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9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서로 사랑한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서로를 믿는다', '서로를 존중한다' 등으로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문항들도 '서로 돕는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준다', '화목하다' 등으로 정서적 지지와 관계가 있으므로 이 요인을 「정서적 지지」라고 명명하였다.

<표 4> '가족기능도' 요인분석 결과

문항	I	II	III	IV	V	VI	h ²
3.가족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서로 편안하다	.87	-.06	.01	-.05	-.02	-.10	.58
* 5.서로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62	.13	-.01	.05	.02	-.08	.49
6.서로 사랑한다	.90	.03	.01	-.06	-.04	-.17	.67
* 7.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족이 함께 의논한다	.63	-.01	-.09	.01	.32	-.08	.57
* 9.각자의 생활과 전체 가족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46	.11	.04	.13	.19	-.04	.55
10.서로 돕는다	.62	-.05	-.08	.20	.24	-.13	.59
12.서로를 믿는다	.85	-.06	.02	-.06	-.04	-.04	.57
14.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배려해준다	.39	-.04	.22	.26	.05	-.05	.51
15.서로를 존중한다	.65	-.10	.15	.09	.03	.03	.60
19.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준다	.53	.12	.01	-.05	-.04	.17	.46
* 23.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에게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다	.54	.04	.04	.08	.05	.17	.61
* 32.가족행사가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39	.15	-.13	.22	-.07	-.03	.27
50.나에게 든든한 울타리이다	.63	-.01	-.07	-.09	-.18	.41	.56
51.화목하다	.64	.14	.07	-.01	-.14	.14	.61
24.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낸다	.25	.64	-.08	.04	.20	-.19	.68
27.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없다	-.09	.42	.06	.01	.39	-.20	.39
29.하루에 한 끼 이상을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	.11	.46	-.14	.09	.05	.03	.31
* 33.친척들과 안부 전화를 자주 주고받는다	.09	.45	-.04	.43	-.34	.02	.42
54.대부분의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낸다	.15	.59	.17	-.14	.03	-.16	.46
58.휴일을 함께 보낸다	.02	.84	-.14	-.06	.12	.02	.70
69.식구들이 다같이 모여서 노는 것이 중요하다	-.13	.64	-.04	.05	.05	.21	.52
73.다른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06	.54	.01	-.07	-.03	.20	.45
* 76.친척들과 자주 만난다.	-.16	.37	.08	.36	-.05	.08	.29
13.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다	.23	-.01	.52	-.05	.01	-.01	.42
34.서로의 일과를 다 알려고 해서 답답할 때가 있다	-.12	-.22	.66	-.03	.02	.12	.35
35.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쓴다	-.16	.40	.51	-.05	.03	-.04	.45
40.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해결한다	.13	.12	.38	-.11	.14	-.11	.28
* 43.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02	-.32	-.35	-.05	-.03	-.02	.38
* 46.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	.01	.02	.50	.23	-.02	-.07	.33
65.서로 심하게 싸운다	.23	-.14	.42	.25	-.06	-.04	.37
66.어떤 일이 잘못되면 가족중 누군가가 눈총을 받는다	.07	.04	.61	-.12	-.09	-.07	.36
4.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있다	-.03	-.03	.08	.65	.01	-.14	.35
21.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다	.11	.03	-.01	.59	.07	.01	.50
22.적합한 생활철학이 있으며, 그것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20	-.11	.11	.42	.13	.04	.43
25.각자 해야하는 집안일이 정해져 있다	-.04	-.06	-.08	.44	.26	.12	.38
38.부모와 자녀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	.21	-.09	-.16	.40	-.03	.19	.29
26.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 가족회의를 한다	-.01	-.04	-.04	.20	.56	.07	.44
55.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12	.09	.01	-.04	.39	.24	.45
56.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다	.10	-.04	.21	.05	.33	.12	.35
60.TV나 신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한다	.10	.15	-.02	.01	.47	.16	.51
61.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이유를 안다	.03	.18	.06	-.18	.34	.27	.38
62.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의논한다	.04	-.01	-.09	.02	.56	.29	.52
* 31.가족원으로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있다	.27	.07	.02	-.07	-.01	.42	.40
57.자녀들이 부모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32	.06	.16	-.17	-.01	.37	.46
68.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16	.13	.26	.16	.06	.42	.50
70.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7	-.02	-.04	-.01	.13	.61	.31
71.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01	-.03	.04	.14	.10	.57	.48
고유치	12.80	2.36	2.25	1.84	1.51	1.47	
설명변량(%)	23.60	13.54	6.41	5.09	4.20	3.67	
누가변량(%)	23.60	37.14	43.55	48.64	52.84	56.51	
요인간상관계수							
I	1.00						
II	.59	1.00					
III	.55	.49	1.00				
IV	.53	.39	.31	1.00			
V	.53	.51	.44	.45	1.00		
VI	.51	.46	.43	.44	.35	1.00	

* 요인간 상관계수가 높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은 '우리가족은' 으로 시작된다.

* * 표시한 문항은 두 요인에 대한 부하량이 비슷하거나 문항 내용이 요인의 특성과 맞지 않거나 애매하여 제외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13.54%를 설명하며, 9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이 가족과의 시간공유 정도와 그에 대한 태도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33. 친척들과 안부전화를 자주 주고 받는다', '76. 친척들과 자주 만난다'의 두 문항은 가족 내부의 관계보다는 친척과의 관계를 살피는 문항이어서 가족간의 시간공유에 관한 본 요인의 내용과 잘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7개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7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휴일을 함께 보낸다', '식구들이 다같이 모여 노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낸다', '대부분의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낸다' 등으로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는 정도 및 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문항들도 생활시간 공유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요인을 「생활시간 공유」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41%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문항이 가족원간의 상호작용과 심리적 교류를 통한 친밀감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46.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문항은 친밀감과 맞지 않으며, '43.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문항은 상호작용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정서적 지지」의 내용과도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6개의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6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서로의 일과를 다 알려고 해서 답답할 때가 있다', '서로에게 속마음을 터놓기가 어렵다',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쓴다'와 같이 서로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상호작용을 알아보는 내용이며, 이는 친밀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서로 심하게 싸운다' 등의 문항 역시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관계가 있으므로 본 요인을 「가족원간의 친밀감」이라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09%를 설명하며, 5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을 살펴보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이 있다', '역할분담이 잘 되어있다' 등으로 가족 내에서 정해진 행동규범과 규칙에 관한 내용이다. 역할분담은 역할에 관한 내용이지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일종의 가족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항들도 가족 내의 규칙과 부모자녀간에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 등에 관한 내용 모두 다 가족규칙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요인을 「가족규칙」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4.20%를 설명하며, 6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를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의논한다', 'TV나 신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한다'는 것으로 가족 내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른 문항들 역시 가족원간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본 요인을 「가족 의사소통」이라고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3.27%를 설명하며 총 5문항이 추출되었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자의 욕구충족을 중요시한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욕구 충족을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가족원의 자율성 발달을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요인을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31번 문항은 '가족원으로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과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31번 문항은 제외하고 총 4개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였다.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본 척도의 기본 영역으로 설정한 7개 영역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개 하위요인을 비교해 보면, '의사소통', '규칙', '자율성(성장성)',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 '시간공유', '친밀감(유대감)' 영역은 6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경계선(위계질서)'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가족규칙」 요인과 「가족원간의 친밀감」 요인에 포함되거나 부하량이 낮아 제외되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상 가족원간의 경계가 모호할 때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자녀간의 위계질서 등은 가족 내에서 암묵적인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6개 요인으로 구성된 37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하위요인과 문항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정서적 지지」 요인으로 9문항(3, 6, 10, 12, 14, 15, 19, 50, 51번)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시간공유」 요인으로 7문항(24, 27, 29, 54, 58, 69, 73번)이 포함되었고, 세 번째 요인은 「가족원간의 친밀감」 요인으로 6문항(13, 34, 35, 40, 65, 66번)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가족규칙」 요인이며 5문항(4, 21, 22, 25, 38번)으로 구성되었고, 다섯 번째 요인은 「가족 의사소통」 요인으로 6문항(26, 55, 56, 60, 61, 62번)이 포함됐으며, 마지막 요인은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 요인으로 4문항(57, 68, 70, 71번)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문항의 설명력 검증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각 요인별로 문항 추가에 따른 설명력을 알아보고 설명력의 증가분이 적은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적은 수의 유용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각 요인에 포함된 모든 문항으로 하나의 척도를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문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설명력(R^2)을 통해 문항을 선정하는 방법이다(홍두승, 1987).

각 요인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지지」 요인에서는 6번 문항의 설명력 증가분이 1% 미만으로 기여도가 낮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전체 분산의 99%를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요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2% 이상의 설명력 증가분을 보이고 있으므로 모든 문항들이 각 요인에 대해 유용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인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6번 문항을 제외하여 36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표 5> 요인별 문항추가에 따른 설명력(R²) 증가

요인	문항번호	R ²	요인	문항번호	R ²
I 정서적 지지	15	.66	II 생활시간 공유	58	.72
	51	.83		24	.82
	12	.89		69	.88
	10	.93		29	.92
	3	.95		54	.95
	19	.97		27	.98
	50	.98		73	1.00
	14	.99			
III 가족원간의 친밀감	13	.49	IV 가족 의사소통	62	.59
	66	.74		60	.78
	35	.84		55	.87
	65	.90		26	.92
	40	.95		61	.97
	34	1.00		56	1.00
V 가족규칙	2	.58	VI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	68	.60
	4	.78		70	.82
	25	.88		57	.93
	22	.95		71	1.00
	38	1.00			

※ 설명력 증가분이 1% 미만인 문항은 제외하였음

4. 가족기능도 척도의 신뢰도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가족기능도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3,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1~.88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므로, 본 척도는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기능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가족기능도 척도의 신뢰도

	가족 기능도	하 위 요 인					
		정서적 지지	생활 시간 공유	가족원 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가족 규칙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
Cronbach's α	.93	.88	.84	.73	.81	.75	.71

5. 가족기능도 척도의 공인타당도

가족기능도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FACES III·FAD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7> 과 같다.

가족기능도 척도와 FACESIII 및 FAD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r=.80, r=.78로 모두 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본 척도의 공인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가족기능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FACESIII와의 상관계수는 .48~.72, 가족기능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FAD와의 상관계수는 .48~.67로 모두 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7> FACESIII 및 FAD 와 가족기능도 척도와의 상관관계

	가족 기능도	하 위 요 인					
		정서적 지지	생활 시간 공유	가족원 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가족 규칙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
FACESIII	.80**	.70**	.64**	.48**	.72**	.51**	.67**
FAD	.78**	.67**	.57**	.65**	.67**	.48**	.61**

**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러 이론과 문헌에서 제시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과 가족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가족에게 적합한 가족기능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가족 내부 환경에 중점을 둬 앞으로의 연구는 물론 가족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족기능성 진단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하여 기능적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자들이 제시한 기능적 가족의 특성과 기존 척도의 하위요인을 참고하여 척도의 문항구성에 필요한 7가지 기본 영역을 설정하였다. 기본 영역은 '의사소통', '정서적 지지(심리적 안정감)', '친밀감(유대감)', '자율성(성장성)', '가족규칙(행동규범)', '경계선', '시간공유(여가 및 활동 공유)' 이다.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문헌에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기능적 가족의 특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 영역과 비교하여 문항에 추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애정·믿음·심리적 안정',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역할 규칙의 명확성·융통성', '민주적 의사소통' 등으로 대부분이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 기본영역에 해당되었다. 그리고 '경계력', '친척관계'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많았는데, 이 내용은 가족 내부 환경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가족의 관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므로 문항에 추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총 90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하였다.

셋째, 90문항의 척도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 주부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가족학 전공자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총 77개의 문항으로 척도

를 구성한 후, 수도권 및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유치원, 초, 중, 고, 대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으 며, 이 중 부실기제를 제외한 3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넷째,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족기능도 총점이 상·하위 25%인 집단에 대해 χ^2 검증을 실시하고 Cramer's V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77개 문항 중 63개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항양호도에서 추출된 63개 문항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주요인 분석을 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값이 14개가 추출되었다. 그러나 문항 구성시에 설정한 기본 영역이 7개였으므로 요인수를 7로 지정하고, 요인간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7개 요인 중 한 요인은 경제력과 사회적 대처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가족 내부 환경을 측정하려는 본 척도의 목적과도 차이가 있으며, 세 개 문항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요인을 구성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60 문항에 대하여 요인 수를 6으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간 상관계 수가 높게 나왔으므로 사각회전을 하였다. 사각회전 결과,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인 4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대해 비슷한 부하량을 보이거나 문항 내용이 요인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다른 요인과의 특성 구분을 애매하게 만든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37개의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다. 6개 요인은 전체의 56.51%를 설명하며, 각각 「정서적지지」, 「생활시간 공유」,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가족규칙」,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으로 명명되었다.

여섯째, 각 요인별로 문항 추가에 따른 설명력을 알아보고 설명력 증가분이 1% 미만인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보다 적은 수의 유용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고자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지지」 요인에서 한 문항(6번)의 설명력 증가분이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2% 이상의 설명력 증가율을 나타냈으므로 유용한 문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여도가 낮은 6번 문항을 제외하고 총 36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일곱째,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고,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71~.88의 범위에서 나타났으므로, 본 척도는 신뢰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와 본 척도와 FACESIII·FAD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r=.80$, $r=.78$ 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으므로 본 척도의 공인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36개 문항, 6개 하위요인으로 가족기능도 척도가 구성되었으며(표8), 본 척도는 「가족원의 자율성 지지」, 「가족규칙」이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요인은 김유숙(1998)의 문헌에서 기능적 가족의 특성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척도에서 하위요인으

로 제시된 것은 별로 없다.

<표 8> 가족기능도 척도

하위요인	문 항
정서적 지지	3. 우리 가족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서로 편안하다.
	10.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다.
	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는다.
	14. 우리 가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배려해준다.
	15.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19. 우리 가족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준다.
생활시간 공유	50. 우리 가족은 나에게 든든한 울타리이다.
	51.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24.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함께 보낸다.
	*27. 우리 가족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없다.
	29. 우리 가족은 하루에 한 기 이상을 같이 모여서 식사한다.
	*54. 우리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각자 개인적으로 보낸다.
가족원간의 친밀감	58. 우리 가족은 휴일을 함께 보낸다.
	69. 우리 가족에게는 식구들이 다같이 모여서 노는 것이 중요하다.
	73.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과 함께 활동하기를 좋아한다.
	*1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다.
	*34.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일과를 다 알고려 하기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35. 우리 가족은 각자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쓴다.
가족 의사소통	*40. 우리 가족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65. 우리 가족은 서로 심하게 싸운다.
	*66.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잘 안될 때는 식구들 중 누군가 한 사람이 꼭 눈총을 받는다.
	26.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를 한다.
	55. 우리 가족은 중요하게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모든 식구들의 의견을 듣는다.
	56.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가족규칙	60. 우리 가족은 TV나 신문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한다.
	61. 가족 중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모든 가족이 안다.
	62.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 모두가 만족스럽게 동의할 때까지 의논한다.
	4. 우리 가족은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있다.
	21. 우리 가족은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다.
	22. 우리 가족에게는 적합한 생활철학이 있으며, 그것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가족원의 자율성	25. 우리 가족은 각자 해야하는 집안 일이 정해져 있다.
	38. 우리 가족에는 부모와 자녀간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57.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68. 우리 가족은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70. 우리 가족은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71.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한다.

※ * 표시한 문항은 재부호화가 필요한 문항임.

「가족원의 자율성 지원」 요인이 가족원간의 친밀성과 별개

로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가족들이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희생을 통한 가족의 유지 및 발전보다는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본 척도는 현대 한국 가족의 기능성 측정에 적합하리라고 본다. 또한, 「가족규칙」 요인은 몇몇 척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척도들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요인이므로 본 척도가 기존의 척도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요인에는 부모-자녀간의 위계질서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의 가족규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척도는 한국 가족의 기능성 측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특정 이론에 기반하지 않았고 현대 한국 가족의 가치관이 반영되었으므로 가족치료 및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가족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한 가족원을 표집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족원 중 어머니가 가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Skinner, 1983) 판단하여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을 주부로 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가족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응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가족원을 대상으로 척도의 유용성을 검증해야 함은 물론, 한 가족원의 인식을 통해서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가족기능성 측정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척도의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통해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족기능도 척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의 가족기능성을 측정하고 관련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이런 작업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접수 일 : 2002년 11월 13일
- 심사 일 : 2002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5월 20일

【참고문헌】

김수연·김득성(1999). 순환모델에 따른 비폭력부와 폭력부의 가족기능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41-255
 김유숙(1998).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김홍기 외(1991). 우울증 환자에서 가족기능도지수와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에 대한 연구*. *가정* 12(7), 36-45.
 도수경(1991). 가출경험 소녀와 비가출경험 소녀간의 가족관계 연

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은정(2000). 아버지의 문제제음 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운(1998). 가족의 지지 및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향숙(1998). 정신신체질환자의 가족기능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정아·최규련(2002).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개정판). 서울: 도서출판 하우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유영주(2001). 건강가족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건강가족상 정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자료집*, 4-27.
 윤도경(1999). 급성 소음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성 면역기능 변화 및 가족기능과 자학적 스트레스 양과의 관련성.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찬정(1995).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호(1999). 물질남용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가족의사소통 및 가족기능 비교.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현(1996). 알코올 문제 가족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청소년의 우울, 불안, 비행과의 관계. 서울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숙 외(2002). 한국형 가족 기능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 만성질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2(3), 395-405.
 정순복(2001). 일 도시 중학생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최용배(1996). 편부모 가정의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호(2000).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개발.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희진·유영주(1999). '가족기능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 Tavitian, Lubiner, Green, Grebstein, Velicer의 가족기능도 척도(FFS)에 기초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57-71.
 홍두승(1987). *사회조사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Ahmann, J. S. & Glock, M. D.(1967). *Evaluaton Pupil Growth : principles of tests and measur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Inc.
 Beaversm W, 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Family systems perspective*. NewYork : Brunner / Mazel, Inc.
 Bekin, G. S. & Nass, S.(1984). *Psychology of adjustment : The fully functioning family*. Boston : Allyn & Bacon, Inc.
 Bloom, B. L.(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24, 225-239.
 Doherty, W. J., & Colangelo, N.(1984). The family of FIRO model : A modest proposal for organizing family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19-20.
 Fisher, J., & Corcoran, K.(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ce(2nd ed.)*, Vol 1. NewYork: The Free Press.
 Freeman, D. S.(1981). Family systems thinking and the helping process : Misconceptions and basic assumption, In Freeman,

- D. S., & Trute, B., *Treating families with special needs*, Canad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장혁표 외 2인 공역(1995).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Gottman, J., Markman, H., and Notarius, C.(1977). The topography of marital conflict : A sequential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61-477.
- Grunebaum, H., & Chasin, R.(1982). Thinking like a family therapist : A model for integrating the theories and methods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8, 403-416.
- Lewis, J. M., Beavers, W. R., Gossett, J. T., & Phillips, V. 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ewYork : Brunner / Mazel, Inc.
- Moos, R.(1974). *Family Environment Scales*,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Pierce, R., Nichols, M. P., & Dubrin, J.(1983). *Emotional expression in psychotherapy*. NewYork : Gardner Press.
- Pinsoff, W. M.(1983). Integrative problem-centered therapy toward the synthesis of family and individual psychotherap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9-36.
- Tavitian, M. L., Lubiner, J., Green, L., Grebstein, L. C., & Velicer, W. F.(1987). Dimensions of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2), 191-204.
- Trivette, C. M., & Dunst, C. J.(1990). Assessing family strengths and family functioning styl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1), 16-36.